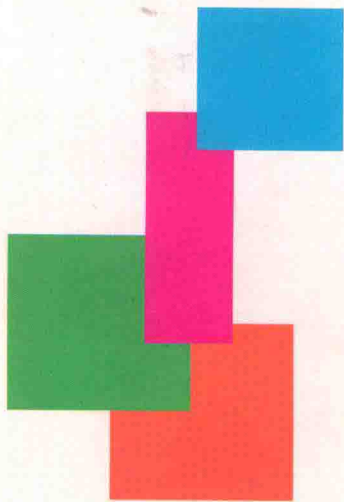


# 일제 말기 조선 작가 소설에 나타난 '만주' 인식

한홍화



민족출판사

일제 말기 조선 작가 소설에  
나타난 '만주' 인식

— 만주 여행 작가들의 소설을 중심으로 —

한홍화

민족출판사

##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日治末期朝鲜小说中的“满洲”认识：朝鲜文 / 韩红花著. —北京：民族出版社，2017.12

ISBN 978-7-105-15162-2

I. ①日… II. ①韩… III. ①小说研究—朝鲜—近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312.007.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7)第292553号

责任编辑：全春梅

责任校对：韩海燕

封面设计：李 峰

出版发行：民族出版社

地 址：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100013

网 址：<http://www.mzpub.com>

印 刷：北京叶知舟数码快印有限公司

经 销：各地新华书店

版 次：2017年12月第1版 2017年12月北京第1次印刷

开 本：880毫米×1230毫米 1/32 字数：200千字

印 张：7.75

定 价：25.00元

ISBN 978-7-105-15162-2/I · 2893(朝305)

该书若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010-58130534； 发行部电话：010-64211734

일제 말기 조선 작가 소설에  
나타난 '만주' 인식

# 차례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10
3. 연구 범위와 방법 .....	25
II. 만주 지역 식민지 경영과 일제의 여행 정책 .....	38
1. 일제의 여행 정책과 지배 전략 .....	38
2. 만주 건설 기획으로서의 여행 .....	50
III. 여행의 경험과 '만주' 인식 .....	64
1. 생존의 불안과 공간 회의 .....	64
2. 충성과 헌신을 전제한 신생 .....	121
3. 이상적 공동체의 모색과 지향 .....	159
IV. 만주 여행 작가 소설의 의의 .....	202
V. 결론 .....	214
참고문헌 .....	219

# I. 서론

## 1. 연구 목적

최근 '만주'<sup>1)</sup>가 세계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 공간이 역사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맺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와, 국제적 관계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다.

만주는 19세기 말에 이미 미국·러시아를 비롯하여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제적 이권 및 정치적 세력권을 위한 분할의 대상이 되었고, 20세기 초기에는 일본과 러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쟁탈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열강들의 경쟁과 대립의 공간으로 부상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일본에 장악되어 1945년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제국 일본의 식민지로서 수탈과

---

1) '만주'라는 명칭은 청나라 초기 여진족의 부족 명칭에서 유래한다. 1616년 후금 정권을 건립한 청 태조 누르하치가 자신을 '만주 칸'이라 하고, 1635년 청 태종이 여진인을 만주인으로 개칭하게 되면서 생겨난 이 명칭은 곧 지명으로 바뀌어 요서(遼西), 요동(遼東) 지방을 지칭하다가 점차 만주 전역(현재 중국의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3성)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며, 1932년 일본 제국주의가 괴뢰정권 '만주국'을 건립하게 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만주'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특히 이 시기 일본에 의해 건립된 독립국 '만주국'<sup>2)</sup>은 이후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들에 대한 폭력과 복지<sup>3)</sup> 모두를 겸비한 '만주국'의 근대적 성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에 도래하는 많은 근대국가들의 선구로서, 그리고 독립국의 형식을 통한 '만주국'의 제국주의 통치방식과 그 괴뢰적 성격은 전후에 등장하는 이른바 위성국, 꼭두각시 나라들의 원형<sup>4)</sup>으로서 작용하였다.

만주(또는 '만주국')는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현대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에게 만주는 대륙침략의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쟁기지로써, 일본 국내의 경제·정치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서구근대에 맞선 일본 근대의 실험장<sup>5)</sup>으로서 기능했고 중국에 있어서 만주는 일제에 의한 수탈과 착

---

2) 실제적으로 '만주국'은 남만주에 주둔한 일본의 위수군인 관동군이 일본정부나 육군본부의 명령과 무관하게 전쟁을 도발하고 1932년 3월에 세운 나라이다.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9, 12쪽) '만주국'은 독립국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배후의 진짜 파위가 일본군이라는 점에서 서양 역사는 그것을 '괴뢰국'이라 불렀고, 중국 학계는 '위만주국(偽滿洲國)'이라 부른다. (Prasenzit Duara,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나남, 2008, 128쪽)

3) 한석정 역, 앞의 책, 143~155쪽.

4) 한석정·노기식,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9쪽.

5) 일본은 '만주국'의 '실험'을 통해서 이전까지 거추장스럽게 걸치고 있던 위선적인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구호와 '서양화'의 이상을 벗어던지고, '황국신민화'를 외치며 '일본화'의 길로 일로매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계기와 경제적 발판과 전략적 수단을 발견해냈다. 중국과 이어지는 동남아와 태평양에 대한 침략 전쟁, '일만지(日滿支) 블록경제'라는 경제적 아우타르키의 구상, 그리고 '황국신민화'와 '대동아공영권'의 극단적 식민지 동화 정책이라는 정치·경제·사회 세 측면을 아우르는 1930년대 후반 이래 제국 일본의

취, 잔혹한 대중학살과 극악무도한 인간생체실험 등 비극으로 점철된 불행의 식민지로서 망각하고 싶은 공간으로 인지되었다.

한국에 있어 만주는 더욱 복잡한 관계를 맺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조선반도와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넘어서 만주가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역사의 유적지로서, 조국독립을 위한 항일투쟁의 주요 근거지로서, 이주 조선인의 유랑과 정착, 탈출과 방황의 대상지로서 역사·정치·문화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이 지역은 19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조선인들의 대규모적인 이주가 이루어져 온 곳으로, 그 숫자가 일제 패망 전까지 조선반도 인구 2,500만 명<sup>6)</sup>의 약 11분의 1에 해당되는 230만 명<sup>7)</sup>을 돌파하였다는 점, 현재에도 이 지역에 민족의 언어<sup>8)</sup>와 문화를 지켜 가고 있는 200만 명의 중국 조선족이 집거하고 있다는 점은 만주와 한국의 일체감과 동질성, 끈끈한 연대적 관계를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만주 공간이 이처럼 한국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현실적인

총체적 변신이 가능했던 것은 만주라는 거대한 실험실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김백영, 『지배와 공간』, 문학과지성사, 2010, 200~201쪽 참조)

- 6) 김창호, 「일제강점기 한국과 만주의 문학적 상관성」, 『만주연구』 12, 만주학회, 2011, 55쪽.
- 7) 장석홍, 「해방 후 연변지역 한인의 귀환과 현지 정착」, 『연변조선족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2006, 99쪽.
- 8) 강순화는 연변 지구를 중심으로 조선말 사용 정황을 통계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550명의 성시 주민 중 일상용어가 조선어라는 사람이 408명으로서 74%를 차지했고, 농촌에서는 1450명 응답자 중 1387명이 조선어를 사용한다고 답함으로써 총 응답자의 95%를 점한다고 했다. (강순화, 『중국 조선족 문화와 여성문제』, 한국학술정보, 2005, 14쪽)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망각되어 왔다.<sup>9)</sup> 만주가 한국에서 역사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만주에 대한 언급은 주로 역사적 사실과 의미의 선택적 복원과 배제 원리에 의존함으로써 반일과 저항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이외의 내용은 제외되었다. 이런 현상은 20세기 70, 80년대에 이르러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확장되고 구체성을 띠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대체로 독립운동이라는 획일적인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논의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sup>10)</sup>

한국 학자들의 만주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계기로 촉발되면서 중한 수교 이후에야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은 '만주의 해'<sup>11)</sup>라고 불릴 정도로 만주 연구의 열기가 대단했으며, 이 시기에 발족된 만주학회와 고구려연구재단, 그리고 2006년에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등 학술단체와 연구재단들은 만주 지역의 지리·역사·정치·문학 등에 관한 대량의 연구논문과 서적을 배출해냄으로써 만주 공간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9) 신주백은 그동안 만주가 망각되어 온 이유를 만주 지역의 공산화와 분단으로 인한 거리감, 남한 내부에서 또는 남북한 사이의 격렬한 좌우 대결,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남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으로 보고 있다. (신주백, 「분단과 만주의 기억」,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321쪽)

10)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신주백, 위의 글, 319~335쪽 참고할 것.

11) 한석정, 「동북공정 논쟁, 그리고 만주의 기억」, 『문화과학』 40, 문화과학사, 2004, 13~26쪽.

그중 문학 분야에서의 만주 연구는 오양호<sup>12)</sup>가 『만선일보』에 실린 작품들과 재만조선인소설집 『썩트는 대지』 등 자료를 발굴, 소개하면서 학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오양호의 만주에 대한 관심은 그가 「이민문학론」(1, 2)<sup>13)</sup>과 「암흑기문학 재고찰」<sup>14)</sup>이라는 논문에서 이미 제기한 바와 같이 그동안 한국문학사에서 1940년에서 1945년까지의 시기를 ‘암흑기’<sup>15)</sup> 또는 ‘친일문학기’<sup>16)</sup>로 규정하여 온 데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문학사는 단절될 수 없으며, 문학사에는 공백기가 있을 수 없다”<sup>17)</sup>는 견고한 신념하에 그는 이 시기 만주에 거주하면서 한글로 창작 활동을 펼쳤던 조선인작가들의 작품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그는 곧 『재만조선시인집』(1943), 『만주시인집』(1942), 『썩트는 대지』(1941) 등 재만조선인작품집을 연속적으로 발굴하게 되면서 “일제 말기 한국 현대문학사는 간도이민문학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sup>18)</sup>는 입장을 확고히 한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 ‘재만조선인문

12)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오양호,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인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1996.

13) 오양호, 「이민문학론」(1), 『한민족어문학』 3, 한민족어문학회, 1976, 87~105쪽.

오양호, 「이민문학론」(2), 『한민족어문학』 4, 한민족어문학회, 1977, 69~86쪽.

14) 오양호, 「암흑기문학 재고찰」,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 234~237쪽.

15)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9.

장덕순, 「일제암흑기의 문학사」, 『세대』, 1963. 9.

16)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83.

17)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13쪽.

18) 오양호,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인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1996, 5쪽.

학'19)을 연구대 상으로 한 단행본과 논문들이 속출되는데<sup>20)</sup>, 이러한 연구는 최근에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sup>21)</sup>

19) '만주조선인문학'(임용택, 「일제강점기의 만주조선인 문학 소고」, 『한국학연구』 2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107~135쪽), '재만한인문학'(임명진, 「일제강점기 '재만한인소설'을 통해 본 '만주'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3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29~51쪽), '재만한국문학'(채훈, 「재만한국문학연구」, 『논문집』 30, 숙명여자대학교, 1990, 259~322쪽)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재만조선인문학'(김호용, 『재만조선인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8)이란 용어는 주로 일제패망 전 만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펼친 조선인작가들의 문학을 가리킨다.

20) 채훈, 위의 논문, 259~322쪽.

이명재, 「일제하 북간도 지방의 망명문단」, 『동북아연구』 1, 중앙대학교 동북아연구소, 1994, 97~126쪽.

장병희, 「재만조선인 작품집 『싹트는 대지』 연구」, 『어문학논총』 17,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8, 59~87쪽.

이은숙, 「1930년대 북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이민의 공간이미지」, 『대한지리학회지』 34, 대한지리학회, 1999, 419~434쪽.

홍연실, 「간도소설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태운, 「일제강점기 한국 유이민 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정은, 「한국의 유이민소설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종호, 「일제강점기 만주 유이민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전성호, 「일제하 중국 조선인 소설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변옥정, 「일제강점기 만주 유이민 소설 연구 — <만선일보>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은숙, 「일제말 재만 조선인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1) 계곤, 「일제강점기 간도소설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표언복, 「해방전 중국 유이민소설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들 연구는 주로 1920~1930년대 만주 체류 경험이 있는 최서해, 강경애 그리고 1930년대 후반 만주에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펼친 안수길, 김창걸, 박영준, 현경준 등 조선인작가들의 창작작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만주는 조국을 상실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생존과 도피, 방황과 유랑, 민족·계급 간 갈등, 수난과 반항, 항일과 친일의 공간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그동안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주 공간의 정체성과 의미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제 말기 조선 국내 작가들이 창작한 만주 관련 작품들을 살펴볼 때, 만주는 불안과 공포, 불행과 모험의 공간뿐만 아니라 다소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명량한 공간의 모습으로도 그려짐으로써 재만조선인문학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 만주 공간과 만주 이주민의 삶은 재만조선인작가들뿐만 아니라 조선 국내의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이 시기 이태준, 이기영, 정인택, 이효석, 한설야, 채만식, 함대훈, 정비석 등 조선의 많은 문인들이 만주 여행을 체험하였으며

---

박일우, 「한국근대문학의 만주 표상에 관한 연구 — 1930~4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재용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6.

한수영, 「'재만(在滿)'이라는 경험의 특수성—정치적 아이덴티티와 이민족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29집, 동남어문학회, 2010, 223~248쪽.

개인적 방문이나 취재 또는 시찰의 형식<sup>22)</sup>으로 만주를 경험한 이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관찰하고 이해한 만주를 기행문이나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당시 조선 국내의 작가들도 만주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재만조선인문학 연구 성과에 비하면 만주 여행 경험이 있는 조선 국내 작가들의 만주서사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물론 재만조선인작가들은 그들의 특수한 만주 경험에 바탕하여 만주 공간과 조선이주민들의 삶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장점을 갖지만, 만주에서의 그들의 내부적 경험은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공간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됨으로써 인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재만작가들이 쉽게 노출할 수 있는 이러한 인식적 한계는 당시 만주를 여행한 작가들에 의해 보완되고 극복될 수 있다. 단기간의 체험을 특징으로 하는 여행자는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위험이 따르지만,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대상을 냉정하게 바라봄으로써 공간적 현실을 보다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2) 당시 만주 또는 중국 체험이 있는 조선 문학인들 중 유학 체험을 한 사례를 찾기 매우 어렵다. 심훈, 이육사 등이 중국에서 수학했다고는 하나, 일본 유학생 출신들에 비할 때 그들의 비중은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하였다. (김외곤, 「한일 문학인의 만주 기행 비교」, 만주학회학술대회, 2004, 57쪽.)

그러므로 만주에 대한 인식은 이주자의 내부인의 시각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외부인의 시각과도 연계될 때 비로소 그 실체적 진실에 더욱 근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 말기<sup>23)</sup> 식민지 조선 작가들의 만주서사를 검토하는 일은 당시 재만조선인작가들이 내부인의 시선으로 구현해 내지 못한 만주 공간의 의미를 보다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 시기 만주를 통해 표출되는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다양한 욕망을 추적하는 데 아주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만주 관련 문학 연구에 있어서 주로 재만조선인 문학에만 집중되어 온 기존 연구의 편재성과 불균형성을 극복하고 일제 말기 만주 여행을 다녀온 조선 작가들의 소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만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 조선 작가들의 만주 체험의 방식과 만주를 여행하는 과정에 작동하는 내면의식, 시선 및 욕망 등이 그들의 소설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조선 작가들의 만주 인식을 총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역사 시대적 한계로 인해 일제의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당시 조선의 작가들이 만주 지배이데올로기와 연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해 나가고 있으며 조선인이 만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떠한 고민과 모색의 노력들을 하였는지도 함께 알아봄으로써 식민지 조선 작가들에게 만주 여행과 만주 공간이 갖는 의미를 밝혀냄과 아울러 이들 소설이

23) 본고에서 사용되는 '일제 말기'는 1937년 항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일제패망 이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지니는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 2. 연구사 검토

한국근대소설에서 만주는 1920년대 최서해의 작품에 본격적인 배경으로 등장한 이후, 일제강점기 한국소설의 보편적인 소재와 배경으로 부상된다. 193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만주 관련 소설들은 주로 조선인들이 만주에로의 이주를 결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동기, 이주 이후 재만조선인의 삶의 실상을 그려내는 데 역점을 두었는데<sup>24)</sup> 이 시기 소설은 땅을 잃은 조선농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인 동기와 사상범(思想犯)들의 도피 또는 현실에 불만을 느낀 지식인들의 투쟁을 위한 사상적·정치적 동기가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었거나 만주에 이주한 뒤 중국인 지주와의 계급적·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재만조선인의 고달픈 삶과 주의자(主義者) 또는 투사들의 사회운동과 사상투쟁이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만주는 대체적으로 고향을 상실한 조선인들의 방황과 도피, 억압과 수난, 저항과 투쟁의 공간으로 파악되어 왔다.

24) 조남현은 이 시기의 만주 관련 소설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떠나가는 행위와 모습을 '출발점'으로 삼은 경우와 '귀결점'으로 매듭지은 경우이다. 전자는 '이주 이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로 간도 지방을 배경으로 한 한국인들의 고통으로 가득찬 삶의 실상을 그리는 데 역점을 둔 소설들을 말하고 후자는 '이주 전야'에 주목한 것으로 만주행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연과 사정을 털어놓는 데다 서술 의도의 초점을 맞춘 소설을 말한다. (조남현, 「1920, 30년대 소설과 만주이주 모티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90, 220~269쪽)

만주 공간의 의미는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 일제가 도발한 중국침략전쟁 및 태평양전쟁과 그에 따른 식민정책의 구체화, 언론 통제의 심화, 황국신민화의 강요 등 역사·정치적 배경 속에서 일제는 식민지 지배에 유리한 각종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선전·유포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강요하였다. 당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간 작가들은 일제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었던 또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간에 당대의 제국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 시기 만주문학 및 만주 공간에 대한 이해는 일본 제국주의에 포섭된 친일문학 및 친일공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논의의 주된 관심이 되어 왔던 재만조선인문학은 ‘만주국’에 포섭된 국책문학<sup>25)</sup>인가 아니면 재만조선인의 민족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민족문학으로서의 망명문학<sup>26)</sup>인가 하는 작품의

25) 이러한 논리를 보이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채훈, 『일제강점기 재만 한국문학 연구』, 깊은샘, 1990.

이상경, 「간도체험의 정신사」, 『작가연구』 2, 새미, 1996.

권철, 『光復前 中國朝鮮民族文學研究』, 한국문화사, 1999.

26) 이러한 논리를 보이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민현기, 「안수길의 초기 소설과 간도 체험」, 『한국근대소설과 민족 현실』, 문학과지성사, 1989.

최경호, 『안수길 연구』, 형설출판사, 1994.

조성일·권철, 『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 이회문화사, 1997.

김호웅, 「대일협력과 저항의 몇가지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33~54쪽.

협력/비협력적 성격을 둘러싼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일제 말기 조선 국내 작가들의 만주를 다룬 소설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대립적 견해가 똑같이 반복되어 왔다.

일제 말기 친일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 연구 저서를 통해 일제 말기에 활동했던 조선작가들의 행적과 문학에 대해 추적하고 그들 문학의 친일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친일문학'의 개념을 "주체적 조선을 상실한, 맹목적 사대주의적인 일본 예찬과 추종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으로 규정하고, 이 시기 작가들이 "소위 국어로 글을 썼는가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총력전 수행과 황도조선의 수립에 협력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점을 '친일문학'의 성격을 규명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만주문학과 관련해서 임종국은 만주 개척을 소재로 한 정인택의 단편소설 「검은 흙과 흰 얼굴」 한 편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지만 그가 제시한 '친일문학'의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시기 만주를 표상한 대부분의 소설들은 친일문학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것은 이들 소설이 취하고 있는 소재와 주제내용이 만주 이주와 개척, 민족협화, 동아협동체론 등 일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을 맺고 있으며 이들 작품에는 당대 이데올로기의 반영과 수용, 선전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임종국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만주소설의 친일적 성격을 규명한